

서울교육청, 문해력·수리력 검사 해외·부산 학생 포함 10만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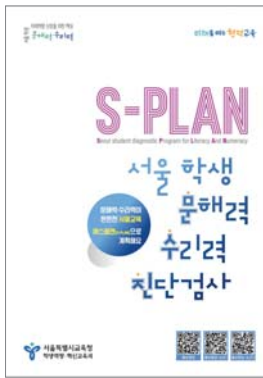
서울교육청, 기초학력·역량 진단
초·중·고 총 665개교, 10.2만명
교과학습 기반 범교과적 기능 점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을 넘어 재외한 국학교와 부산지역 학교까지 참여를 확대하며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미래 역량을 진단하는 대규모 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은 서울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서울 에스플랜·S-PLAN)'를 서울 초·중·고등학교와 재외한국학교, 부산지역 학교 등 총 665개교, 약 10만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래 학력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것으로,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범교과적·도구적 기능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해력은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수



리력은 학습과 일상에서 수학적 사고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검사 문항은 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을 반영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교과 융합형 문항이나 실제 생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이 포함된다.

'2025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에는 서울의 희망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뿐 아니라 재외한국학교 및 부산의 학교까지 참여한다. 올해 참여 학교는 665교로, 지난해(525교)보다 약 26%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 태국, 이집트 소재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글로벌 학생 역량 진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난 9월 업무협약을 맺은 부산지역 62교(학생 1690명)도 참여해 진단뿐 아니라 수업과 평가 혁신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진단검사는 컴퓨터 기반 검사(CBT)로 진행되며, 학교별 일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 기간을 두 차례로 나눴다. 1차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는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다. 초등학교는 과목당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씩 문해력 I·II, 수리력 I·II 등 4과목을 치른다.

이번 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개통한 '서울 학생 미래 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실시된다. 이 시스템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다양한 평가 도구가 탑재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소양교육 지원협의체 운영 ▲지도 자료 개발·보급 ▲전문가 양성 연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찾는다

대학운영 혁신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발굴, 전국에 확산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추진한 자율적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대학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그간 ▲전임교원 교수 시간 자율 운영 등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 ▲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과 개편 지원을 위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실제 대학 운영에 적용한 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공모에서는 ▲울산 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과정 근거 마련'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 수립 단계나 추진 중인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1단계)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투표 '소통24' (2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 1개교, 우수상 4개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대학으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법령 개정이나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 프로그램, 학칙 개정 등의 사례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이메일(kje6733@korea.kr)로 진행되며, 결과는 12월 말 발표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학령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혁신 역량이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한강버스 내달 1일부터 재개... 품질 보장

서울시, 약 300회 시범 운항 실시

지난달 29일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잠시 멈췄던 한강버스가 약 한 달간의 점검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한강버스는 11월 1일 첫차인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한강버스는 데이터 축적, 성능 안정화 및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점·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

운항 재개 시에는 당초 정시운항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

작하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또한,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시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 상황을 방지한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및 운항 환경 변화·적응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운항한다.

요금은 편도 성인 3000원(청소년 1800원/어린이 1100원)으로 변동 없이 운영되며 지난 8월부터 선착장 연계를 위해 연장·신설된 시내버스도 현재 정상 운항 중이다. /이현진 기자

2026 수능 응시생 11만명... 재학생 55.4%

2026학년도 수능 세부계획 발표
시험장 확대, 감독체계 강화 등
안정적 시험 운영 만전 기할 것

올해 서울지역 수능 응시생이 전년보다 3400여 명 늘어난 11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장 확대와 감독 체계 강화 등 안정적인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지역 수능 응시원서 접수 인원은 총 11만4158명으로, 지난해(11만0734명)보다 3424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6만3283명(55.4%), 졸업생은 4만6679명(40.9%), 검정고시 등 기타 자격자는 4196명(3.7%)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만9531명(52.1%), 여학생이 5



만4627명(47.9%)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1개 시험지구, 228개 시험장에서 총 4332개의 시험실을 운영한다.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 시험장 4개교를 마련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남부교도소 내 별도 시험실도 운영한다.

감독관을 비롯한 시험 관계요원은 1만9793명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

험생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예비소집 시에는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관 대상 교육을 사전에 반복 실시하고, 방송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침보완과 관계요원 교육을 통해 시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모든 수험생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험생 모두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 시흥에도 수요응답형 '똑버스' 달린다

27일부터 운행... 주요 생활권 연결

경기도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DRT)'를 27일부터 시흥시에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도내 똑버스 운행 지역은 20곳으

로 늘었다.

시흥시 똑버스는 5대 차량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된다. 신천역과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신천동·대야동·은행동 등 지역 내 주요 생활권을

연결한다.

'똑버스'는 승객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해 운행하는 AI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로, 2021년 파주 운정신도시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시군 318대로 확대 중이다.

누적이용자수는 1024만명, 만족도는 84.7점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美 이민당국 단속 피하려던 20대男...트럭 치어 숨겨
▲美·中 '무역 전쟁' 일단 소화 국면...30일 한국서 '정상 담판' 전망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말레이 일정 마치고 도쿄로 출발...28일 미일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일대 드론 공습...도네츠크 일부 탈환

▲크렘린 "새 제재가 러-미국 관계 회복 어렵게 해" 밝혀
▲러 외무 "미러 정상회담,美측에 달려...영토 문제 논의될 것"